

[성명]

7월 1일자 비정상적 직원 인사발령에 대하여 대학본부에 묻는다

이번 7월 1일자 직원 인사발령에 대하여 대다수의 직원들은 강한 의문과 불만 섞인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직원들은 대학본부가 자율·자립적 운영능력을 상실했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한다. 특히 8월 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 달이나 시급히 인사발령을 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법인의 긴급한 요청이라는 이유도 궁색하게 들린다. 법인의 긴급 요청이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대학본부는 법인의 단순한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인가. 법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대학에서 그 요청의 타당성과 시의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했다. 이번 비정기·비정상적 직원 인사발령은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해 보아도 소위 ‘물같이’ 성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대학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꺾는 조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전 법인의 요청에 의해 법인 사무국으로 전출된 직원들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급히 대학에 복귀시킨 점에 대해 구성원들은 의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대학으로 전보된 직원들은 퇴임 한 학기를 남겨둔 상태이거나, 법인에 요청에 의해 16년 이상 법인에 종사한 경우였다. 당사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긴급한 인사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인 사무국의 개편이라는 명분을 고려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법인 사무국이 어떻게 개혁되어 얼마나 책무를 다할 것인가도 의문스럽다고도 한다. 정이사체제 5년 차를 맞아 대학의 필수·핵심 인력을 법인으로 전출시켜 보임하고, 법인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과거 임시이사체제와 다를 바 있는지도 정직하게 자문해야 한다. 대구대학교 직원사회가 법인 정상화와 대학발전에 열정을 다한 결과가 현재의 인사로 귀결된다면, 직원사회는 더 높은 열의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이다.

특히 직원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임을 법인도 주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전출시킨 것에 대해 구성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총장과 대학본부는 그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지도 성찰해야 한다. 노조를 비롯한 직원사회와 구성원들은 수년 간 인원 충원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대학 재정안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있었기에 묵묵히 견디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기에 요청한 것이었다. 대학 행정의 향상성과 연구·교육의 기반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충원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귀를 닫은 채 오히려 대학 직원을 더 전출해 갔다. 거기에 더해 대학본부는 법인과 협의 과정의 곤란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직원 충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장기간 실질임금 감소와 함께 직원사회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직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한다. 대학본부와 법인은 재정안정화라는 명분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직원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영광학원 법인이 오늘의 정이사체제에 정착하고 있는 것은 30년여의 대구대학교 구성원의 염원과 희생으로 일궈진 역사적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대구대학교의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접민주주의로 성립되고 있는 것은 확정된 현실이다. 이 역사를 견인한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사회의 물심양면 헌신한 노고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진심으로 따랐던 직원과 조합원에게 절차적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과분한 요구인지 대학본부와 법인에 묻고 싶다. 사람을 언제든 대체가 가능한 잉여 부속물로 보지 않기 바란다. 지난 격동의 2005년 그해 봄, 노동조합은 성명서마다 수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인은 대구대학교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며, 대학본부와 법인은 대구대학교 직원사회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길 당부한다.

2023. 7. 6.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